

아버지처럼 완전해지는 것의 징표

너희들은 세 세계나 세 단계 - 무체, 천사체 그리고 육신 - 에 안정하는데 너희의 의식의 힘을 쉽게, 그리고 끊임없이 사용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본래의 육신의 단계에 안정하는 것처럼 영원한 무체의 단계에 안정하는 것도 그만큼 쉬움을 경험하느냐? 너희가 의식의 힘을 사용할 때, 한 순간은 영원한 단계를 경험하고 그 다음 순간에는 본래의 단계를 경험하는 데 대등함이 있느냐? 너희들은 그것을 경험하느냐? 너희가 육신의 형태에 안정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처럼 너희의 본래의, 영원한, 무체의 형태에 안정하는 것도 그만큼 자연스러워야 한다. 그 생각을 하자마자 그 형태에 안정할 수 있는 것을 아버지와 대등한, 마지막 카르마티트 단계, 완전함의 단계를 갖는 것이라 한다. 따라서 너희 자신을 체크해라: 나는 나의 마지막 단계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 너희의 완전한 단계에 가까이 올수록, 그만큼 너희들은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오고, 보상으로 미래에 왕국에 권리를 차지하는데 있어서 더 가까워질 것이다. 그와 더불어, 신봉자로서의 너희의 첫 생애 가까운 관계 안에 있을 것이다. 그 두 생애 - 숭배될 가치 있는 생과 숭배자의 생 - 에 있어서 너희들은 사카르 바바에게 가까울 것이다. 이는 전체 사이클 내내 너희가 첫 영혼과 가까운 관계에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너희 영혼들은 또한 여러 다른 이름과 형태로 주인공 배우와 함께 특별한 역할들을 할 것이다. 지금 너희의 완전한 단계의 가까움, 지금 밥다다에게 가까움은 전체 사이클 내내 너희의 가까움의 토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위해 원하는 만큼 많은 보상을 전체 사이클을 위해 창조할 수 있다. 너희의 가까움의 토대는 너희의 위대함이다; 그리고, 너희의 위대함에 대해서, 너희들은 산 죽음을 죽은 너희의 생 안에서 두 가지를 특별히 체크해야 한다. 첫째로 너희들은 남들을 끊임없이 드높이느냐? 둘째로,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순결하게 지내왔느냐? 산 죽음을 죽은 너희의 생 초기부터, 즉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은 언제나 순결하게 지내왔느냐? 순결한 삶이란 브라마 바바의 생처럼 순수한 삶을 의미한다. 이것은 “브라마차리” (순결한) 또는 “브라마-아차리” (브라마의 발자취를 따름)라 불릴 수 있다. 너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에 한결같았느냐? 만일 너희가 거둬들이 이 규율을 어겼다면, 그럴 때는 끊임없이 순결한 영혼 또는 “브라마-아차리”라 불릴 수 없다. 만일 너희가 순수성과 청결함의 규율을 어기면, 그럴 때는 지극히 숭배받을 가치 있게 될 수가 없다. 너희들은 아버지와 대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가까운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고귀해지는 바탕과 가까움의 토대는 태어날 때부터 순결하게 지내는 것, 즉 끊임없는 “브라마차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라 부른다. 따라서 너희가 끊임없는가를 너희 스스로 체크해 보아라. 끊임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자들은 또한 모든 성취를 경험한다. 끊임없이 이 수련을 어기는 노력가의 성취는 어떤 것이라도 잠시 동안뿐일 것이다. 따라서 너희의 기록부가 언제나 순수하고 깨끗한지, 또는 어떤 식으로든 얼룩이 지게 해서 기록부를 망치지는 않았는가를 체크해 보아라. 끊임없이 순결하다는 것은 너희의 생각에 어떤 종류의 불순함도 없어서 너희의 태도가 말썽을 일으키게 허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첫째 패배는 태도가 말썽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너희의 시선과 행동이 말썽을 일으킨다. 태도의 말썽은 여러 가지 얼룩으로 너희의 기록부를 망친다. 그러므로 태도에 있어서조차 끊임없이 순결하게 지내라. 오늘 밥다다는 어떤 자녀들이 끊임없이 순결하며, 어떤 자녀들은 그저 순결한가를 보려고 자녀들의 이 기록부를 점검하고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순결하게 지내온 자들에게 중요성이 부여된다. 태어날 때부터 순결하게 지내온 자들은 지금 현재에도 숭배받을 가치가 있다;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고귀하다. 밥다다는 그런 자녀들을 숭배될 가치 있는 자녀들로서 본다. 지금도, 끝에, 너희들은 숭배될 가치 있는 영혼들로서 세계에 드러날 것이다. 아버지에게 숭배받을 가치 있는 영혼으로 보여지는 자들은 끊임없이 아버지와 가까운 관계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너희의 기록부를 점검해라. 둘째로, 남들을 들어올리는 자가 되는 것의 의미도 또한 매우 깊다.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이 의미에 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너희들은 세상의 모든 영혼들, 그리고 브라마 영혼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자비로우냐 아니면 때로는 너희 자신에게만 유익을 주며 오직 너희 자신에게만 자비롭고 단지 때때로만 남들을 드높여주느냐? 사실 남들을 드높여주는 자들은 또한 그들 자신에게도 유익을 준다. 따라서 이 측면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서 너희의 기록부를 점검해라. 나중에 밥다다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말해줄 것이다. 알겠느냐? 앗차.

자신의 영원한 본래의 형태에 쉽게 안정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깨끗하고 맑음을 유지함으로써 숭배될 가치가 있는 영혼들에게, 전체 사이클 내내 아버지와 가까운 관계를 갖는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순결한

자녀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와 교사들의 만남:

교사들은 특별한 승강기를 받는다. 왜냐하면 교사의 임무는 모든 영혼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희들은 밤낮으로 한 분의 사랑에 합쳐져 있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한 분을 기억하고 하나의 과업에 몰두해 지내는 자들이며, 따라서 끊임없고 안정된 단계를 가질 수 있다. 한 분의 사랑에 몰입되어 있음으로써 너희들은 쉽게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저 한 분 뿐이고, 따라서 길이 쉬워졌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은 스위치를 켜고 일초 만에 목적지에 도달한다. 너희들은 그 순간 너희가 한 어떤 생각이든 그것의 화신이 된다 - 이것이 너희의 승강기다. 교사들이 그들 자신의 행운을 볼 때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칭송을 노래해야 한다. “와 바바! 와 드라마!” 이 노래가 끊임없이 들리게 해라. 너희가 이 행복을 가질 때, 너희 몸의 어떤 굴레나 마음의 굴레가 있더라도 그것이 마치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너희가 끊임없이 바쁘게 지낼 때는 마아가 어떤 식으로도 너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마가는 패배당할 것이며, 너희를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

가까운 영혼들에게는 노력하는 것이 오락의 수단이 된다.

브라마 바바의 첫 특질은 애착의 파괴자라는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그는 또한 끊임없는 기억의 화신이 되었다. 너희들은 그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따르고 있느냐? 이 특질을 통해서 너희들은 매우 가까운 영혼이 될 것이다. 너희들 스스로가 자아와 남들에 대한 애착의 정복자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영혼들은 아주 쉽게 모든 성취를 얻는다. 그들은 또한 노력이 마치 게임 같다고 느끼고 아무런 어려움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노력은 또한 오락의 한 형태다. 만일 한편으로 평범한 방식으로 뭔가에 관해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을 오락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까운 영혼들은 노력을 오락의 한 형태로서 경험할 것이다. 가까운 영혼의 주된 징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것도 어렵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다.

성공의 바탕은 초연한 관찰자이며 동반자임을 경험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끊임없이 너희 자신을 아버지의 동반자로 여기며 움직여나가느냐? 만일 너희가 동반자임을 경험한다면 또한 초연한 관찰자임을 경험할 것이다. 너희들은 아버지의 동반을 가졌고, 그는 초연한 관찰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므로, 너희가 그의 동반자이니 너희들도 너희의 역할을 초연한 관찰자로서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하느냐?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고, 끊임없이 전능한 권위자의 동반을 갖는다. 너희가 그의 동반을 가질 때 성공은 이미 보장되어 있다. 신봉의 길에서도 역시 신봉자들은 ‘우리에게 잠시 당신의 동반을 경험하게 해 주세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일별하게 해 주세요!’ 라고 외쳐 부른다. 그러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너희들은 모든 관계 안에서 그의 동반자가 되었다. 일별이나 비전은 단지 잠시 동안뿐이지만 관계는 영구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 너희들은 아버지와 가까운 관계를 갖느냐 아니면 너희들은 아직도 구도자이냐? 아무런 성취를 얻지 못할 때 찾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너희들은 더 이상 구도자가 아니고 모든 권리를 가진 자이다. 너희들은 매 순간 그의 동반을 갖는다. 그와 가까운 관계를 갖기 때문에 너희들은 매 순간 그에게 가깝다. 모든 이가 자기 삶의 동반자를 찾는다. 사람들은 동반자의 지원과 함께 생을 보낸다. 너희들은 이제 어떤 종류의 동반자를 찾았느냐? 영원한 동반자다! 다른 어떤 동반자도 너희가 필요할 때 끊임없이 너희에게 올 수가 없다. 밥다다는 언제나 일초 만에 너희에게 올 수 있다. 이 동반은 여러 생 동안 지속된다. 미래에도 역시 너희들은 아버지의 동반을 가질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쉬브 바바는 초연한 관찰자가 될 것이며, 아버지 브라마는 너희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현재는 둘 다 너희의 동반자이다. 이를 경험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행복을 유지한다. 너희들이 자기가 찾고 있던 것을 얻었을 때는 매우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은 모든 것을 얻었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아버지와 대등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등수대로다.

왜 밥다다가 특별히 삭티군대에 상승단계의 협조를 주느냐? 왜냐하면 모든 이가 삭티들과 어머니들을 무시해왔기 때문이다. 이제 아버지가 와서 너희들을 드높인다. 그는 심지어 삭티들을 그 자신보다도 앞세운다. 그러므로 삭티들은 특별한 행복을 가져야 한다. 너희 삭티들의 얼굴은 끊임없이 빛나고 있

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특별히 너희들을 앞에 내세우기 때문이다. 심지어 약간의 일시적인 성취를 가진 자들의 광채도 그들의 얼굴에 보여진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성취다! 너희 어머니들은 우는 적이 있느냐? 너희들은 때때로 눈에 눈물이 나느냐? 이제 너희의 눈 속에는 영성이 있고, 영성이 있는 곳에는 눈물이 있을 수 없다. 판다바들은 신체적으로나 마음으로 우느냐? 너희가 행복의 대양 속에 합쳐지는 자들일 때 어떻게 울 수가 있느냐? 우는 것은 슬픔의 표시다. 따라서 어떻게 행복의 대양에 합쳐진 자들이 울 수가 있느냐? 꿈에조차 슬픔의 파도가 없어야 한다. 이제 너희들은 행복의 대양과 가까운 관계에 있으니 너희의 꿈조차 행복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끊임없이 행복과 기쁨 속에 잠겨 있고, 절대로 울지 말아라. 황금시대에 너희의 백성들이 울겠느냐? 그러니 미래에 왕이 될 자가 왜 울어야겠느냐? 샅티들은 샘플이다. 만일 샘플이 운다면, 어떻게 너희가 다른 거래를 하겠느냐? 그러므로 신체적으로나 마음 속으로도 결코 울지 말아라. 알겠느냐?

축 복: 봉사에 대한 열의와 열성을 가짐으로써 안전을 경험하는 마야의 정복자가 되어라.

물리적인 봉사와 영적인 봉사를 위해 달려나가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녀들에게는 봉사에 대한 이 열의와 열성이 안전의 수단이 된다. 봉사에 몰두하는 자들은 마야로부터 보호된다. 마야도 너희가 자기를 위한 시간이 없음을 보고는 가버린다. 아버지와 봉사를 사랑하는 자녀들은 가외의 용기의 도움을 받고, 그로 인해 쉽게 마야의 정복자가 된다.

슬로건: 지식과 요가를 너희 삶의 성질로 만들어라. 그러면 어떤 낡은 성질이라도 변화될 것이다.

*** 음 샐티 O M S H A N T I ***